



magazine de Korean Airline  
photo et dossier de Vincent Sung  
mars 2005

*Une des sculptures dans l'alcôve  
privé de la Talentueuse  
Agnès Debizet.*

*En visite à l'abbaye nîmoise dans la  
campagne, cette statue de chrétienne  
rappelle un lot.*



Agnes Debizet



조각가인 아녜스 드비제(Agnes Debizet)는 파리 75003 샤를로에 위치한 안 비니알(Anne Vignial)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안 비니알 갤러리에 전시된 그녀의 조각품은 채색 도기 형태의 조명기기에서 2m에 이르는 나무와 사람 모양까지 다양했는데, 그녀의 작품은 마치 보는 이를 상상의 세계로 탈출하도록 인도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런 예술 세계는 그녀의 아틀리에에 들어서면 더욱 질게 배어나온다. 섬세하지만 힘이 넘치는 스타일의 조각품과 콜라주(찢어 붙이기 기법)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그녀는 아틀리에 안에 자신만의 비밀 키친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전통 도기 예술에 부여된 규칙과 방법에서 벗어나 그것을 굽거나 깨면서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쁨을 찾는다.

또한 아녜스는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창조와 배움과 스타일의 도입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다. 그녀의 상상력은 즉흥적인 순간과 원초적인 사건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충동적이고 미완성이라고 묘사한다. 자연히 그녀의 작품에서 모양은 실용성보다 더 중요시된다. "나는 감자 껍질을 벗기듯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도기를 깎고 조각하면서 내 예술의 감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특유의 상상력이 강물처럼 흐르며 그녀가 사용하는 점토는 원료 그대로인데다 가단성이 있어 조각 작품은 언제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인다.



날이 저물 무렵, 빌(Ville) 호텔 근처 빌뒤탕플(Vieille du Temple) 48번가에 있는 에스파세 데 블랑 망토(Espace des Blancs-Manteaux)에서 열린 '레퀴프(RECUP)' 전시회에 들었다. 이 전시회의 작품들은 재료를 틀에 박히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 그리고 재사용법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뒤바꿔놓았다. 필리프 바르비에(Philippe Barbier)는 '피 폴레(Feu Follet)'라는 제목으로 독특한 조명 작품을 출품했는데 장식에 쓰인 오브제는 공사장과 창고, 마당 등지에서 주워 온 스프링, 특이한 스타일의 유리 그릇, 크림과 버터 제조기, 철 조각 등의 폐물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세련된 방식으로 배열해 마침내 '바부네(Baboune)', '바르베 아 파파(Barbe a Papa)' 등의 재미와 익살스러운 이름을 가진 설치미술 작품으로 완성했다.

또 다른 유명 아티스트인 아르노 루세(Arno Lucet)는 방문객이 버튼을 누르고, 가스 밸브를 조절하고, 또는 공중전화 리코딩을 통해 이상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쌍방향 대화 상자를 출품했다. 며칠 만에 팔린 우주선 모양의 책상이나 공장 스타일의 테이블 같은 실용성 있는 작품은 정말 독특했는데, 그 작품들은 우리를 우주선을 꿈꾸던 유년 시절로 되돌려놓으며 낮을 잃게 했다.



Philippe Barbier

Photos were taken in Paris during Dec. and Jan. 2005 in Le Marais

